

진화하는 황선우, 한국 넘어 아시아 수영 역사도 새로 썼다

첫 올림픽 출전에 자유형 100m 결승행...오늘 오전 경기
표선수 1956년 이후 65년만...아시아 신기록도 갈아치워



첫 올림픽 무대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진화하는 황선우(18·서울체고)가 아시아 수영 역사마저 써냈다.

황선우는 28일 일본 도쿄 아쿠아티스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승 1조에서 47초56을 기록, 준결승 1조 3위, 전체 16명 중 4위에 올라 상위 8명이 오르는 결승에 진출했다.

47초56은 한국신기록일 뿐 아니라 아시아 신기록이다.

황선우는 지난 27일 벌어진 예선에서 47초97을 기록,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전 한국 기록(48초04)을 0.07초 단축하며 전체 6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하루 만에 이를 또 0.41초 줄였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중국의 닝쩌타오가

세운 47초65의 아시아기록을 7년 만에 0.09초 앞당겼다.

안드레이 미나코프(러시아)가 지난해 10월 수립한 47초57을 넘어서는 주니어 세계 신기록이기도 하다. 올림픽 전부터 자유형 100m 한국기록을 수 차례 갈아치우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황선우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루는 경험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더욱 진화하고 있다. 올림픽은 누구에게든 긴장되는 무대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격의 황선우는 "잘하는 선수들과 수영하는 것이 재미있다"며 즐기고 있다.

자유형 200m 예선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첫 단추를 잘 꿰 황선우는 제대로 상승세를 탔다. 그는 지난 25일 남자 자유형 200m 예선에서 1분44초62를 기록해 2010년 11월 16일 박태환이 광저우아시아안계임에서 수립한 종전 한국기록 1분44초80을 11년 만에 갈아치웠다. 아울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니어 세계기록도 다시 썼다.

지난 27일 자유형 100m 예선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한국기록을 48초04에서 47초97로 줄였다.

황선우는 27일 자유형 200m 결승, 자유형

100m 예선, 계영 800m 예선을 차례로 치러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날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다시 한 번 역사적인 레이스를 선보였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결승 진출 자체도 아시아 수영에 기념비적인 일이다.

남자 자유형 100m는 200m나 400m에 비해 아시아 선수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종목이다. 1960년대부터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100m는 서양 선수들의 전유물이었다.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선수가 메달을 딴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1928년 암스테르담 대회의 다카야시 가쓰오(동메달), 1932년 로스앤젤레스 대회의 미야자키 아사지(금메달), 가와이시 다쓰오(은메달), 1936년 베를린 대회의 유사 마사노리(은메달), 아라이 시게오(동메달), 1952년 헬싱키 대회의 스즈키 히로시(은메달) 등 일본 선수들이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에서 메달을 땀다. 1952년 스즈키 이후로는 명맥이 끊겼다. 1956년 멜버른 대회부터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에서 메달을 딴 아시아 선수는 나오지 않았다.

1973년 시작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100m 메달을 딴 아시아 선수는 2015년 카잔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닝쩌타오(중국) 뿐이다.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선



수가 결승에 진출한 것은 황선우가 1956년 멜버른 대회에서 결승에 올라 7위를 차지한 다니 이후 65년 만이다.

황선우가 29일 오전 열리는 자유형 100m 결승에서 3위 내에 든다면, 아시아 수영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1952년 헬싱키 대회 스즈키 이후 69년 만에 이 종목 메달을 따는 아시아 선수로 이름을 올린다.

메달은 충분히 노려볼 만 하다.

준결승 전체 4위인 황선우와 전체 1위인 클리멘트 콜레스니코프(러시아)올림픽선수

단의 격차는 0.45초 차였다. 콜레스니코프 외에 황선우 위에 있는 선수는 차세대 수영 황제 케일럽 드레슬(미국·47초23), 알래스드로 미레시(이탈리아·47초52) 뿐이다.

황선우는 준결승을 마친 뒤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 같다. 일단 결승에 오른 것으로 만족한다"며 "컨디션 관리를 잘 해서 내일 하는 오전 결승을 잘 준비하겠다. 내일 있는 결승에서 또 최고의 기록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국가대표 양궁팀의 신안 자은도 특별훈련. (사진=대한양궁협회 제공)

도쿄올림픽 양궁 대표팀 거침없는 금빛 행진...신안 특훈 '한 몫' 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의 거침없는 금빛 행진에는 '신안 특훈'이 한 몫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궁 대표팀은 결전을 앞두고 도쿄올림픽 양궁경기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훈련했다.

지난 2월 인천 선수촌 실내에 세트장을 조성하고 실제 경기 일정과 동일하게 남녀 개인전과 혼성전 등을 진행했다.

또 도쿄올림픽 양궁 경기장이 열리는 우메노시마 경기장과 똑같은 세트를 실외에 만들어

두모체육공원은 도쿄올림픽 양궁경기장이 열린 우메노시마 경기장과 입지조건이 유사하다.

우메노시마 경기장은 해안가에 위치해 강한 햇빛과 습도, 바닷바람 등이 시시각각으로 변해 선수들을 괴롭히고 있다.

당시 박재순 총감독은 "신안군 자은도의 자연환경이 도쿄올림픽 양궁 경기장인 우메노시마 공원과 비슷해 전지훈련 장소로 택했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기후환경이 비슷한 자은도에서 올림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천후를 사전에 경험하고 대비한 셈이다.

대표팀은 자은도 전지훈련에서 실거리훈련과 랭킹라운드, 혼성, 단체전, 모의경기 등 올림픽과 동일한 경기방식을 적용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뮤지엄파크, 무한의 다리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자은도의 전지훈련이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에 도움이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최적의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은 이날 현재 양궁 혼성단체전과 여자 단체전, 남자 단체전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남녀 개인전 등 5종목 전관왕을 노리고 있다.

신안=이명주기자

한국 탁구, 올림픽 4회연속 단식 메달권 진입 무산

정영식·전지희 모두 8강서 탈락

이번을 꿈꿨던 탁구대표팀 정영식(미래에셋증권)과 전지희(포스코에너지)가 아쉽게 8강에서 도전을 멈췄다.

정영식은 28일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탁구 남자단식 8강전에서 판젠둥(중국)에 세트스코어 0-4(10-12 9-11 6-11 5-11)로 패했다.

5년 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16강전에서 마룽(중국)에 막혀 탈락한 정영식은 또 한 번 중국 탁구에 분투를 삼켰다. 당시 정영식을 꺾고 승승장구한 마룽은 결승에서 장지커(중국)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랭킹 13위 정영식은 1위 판젠둥을 맞아 초반 두 세트 동안 2점차 승부를 벌였다. 백핸드 드라이브를 앞세워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완벽에 가까운 기술을 자랑하는 판젠둥의 벽은 예상대로 높았다. 정영식은 3, 4세트에서 모든 힘을 쏟았지만 각각 6점과 5점을 내는데 만족했다.

세계 최강자로 꼽히는 판젠둥은 한 수 위의



기량을 자랑하며 여유있게 4강에 안착했다.

이미 세계선수권(단체전·복식), 아시안게임(개인전·단체전) 금메달을 갖고 있는 판젠둥은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다관왕에 도전한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14위 전지희는 랭킹 2위 이토 미마(일본)에게 0-4(5-11 1-11 10-12 6-11)로 졌다.

세트스코어 2-0으로 끌려가던 전지희는 3세트 8-10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모두 지켜 듀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이토의 서브 때



연거푸 2점을 헌납해 세트스코어 0-3으로 물렸다. 4세트에서는 6점에 머물렀다.

2004년 아테네 대회 유승민 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의 금메달과 김경아 대표팀 코치의 동메달 이후 17년 만에 단식 메달리스트 배출을 노렸던 한국 탁구는 중국과 일본에 막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남녀단식과 혼합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탁구대표팀은 남녀 단체전에서 다시 한 번 경쟁을 벌인다.

오타니, 시즌 36호포 '왕' MLB 홈런 단독 1위 올라

메이저리그(MLB) LA 에인절스에서 뛰는 일본인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시즌 36번째 홈런을 쳤다.

오타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MLB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홈런포를 가동했다.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오타니는 팀이 0-10으로 크게 끌려가던 5회말 2사 3루에서 콜로라도 좌완 오스틴 고퍼를 상대로 우중간 담장을 훌쩍 넘기는 대형 투런포를 터뜨렸다.

1B-2S의 불리한 볼카운트였지만 한가운데로 향하는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았다. 타격과 함께 홈런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큼직한 타구였다.

시즌 36호 홈런을 신고한 오타니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토론토 블루제이스·32개)에 4개 앞선 홈런 부문 단독 1위를 질주했다.

나머지 타석에서 오타니는 모두 범타에 그쳤다.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면서 시즌 타율이 0.277에서 0.276(340타수 94안타)으로 소폭 하락했다.

에인절스는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3-12로 완패했다. 시즌 성적은 50승50패.

韓 럭비, 일본에 저 최하위...아름다웠던 첫 올림픽



한국 남자 럭비대표팀 선수들이 28일 일본 도쿄스타디움에서 열린 7인제 럭비 11-12위 결정전에서 일본에 패한 뒤 일본 선수들과 악수하고 있다.

한국 럭비가 개최국 일본에 패하며 2020 도쿄올림픽을 최하위로 마감했다.

서천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8일 일본 도쿄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일본과의 올림픽 7인제 럭비 남자 11-12위 결정전에서 19-31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조별리그 3전 전패에 이어 순위결정전에서 2패를 당하며 5전 전패로 첫 올림픽 도전을 마쳤다. 최하위다. 값진 도전이었다.

프리카공화국에 패해 동메달 문턱에서 좌절했으나 당당히 4강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랭킹은 31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였다. 변변치 않은 환경에서 묵묵히 땀 흘려 세계인의 축제에 자력 참가한 것만으로 박수 받을 만하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에는 럭비 실업팀이 한국전력공사, 포스코건설, 현대글로비스 3개뿐이다. 대학팀도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단국대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